

일본은행 단칸 결과, 제조대기업 업황지수 4분기만에 악화

1. 단기전망 주요 결과

□ 2024.3월 일본은행 단기경제관측조사*(이하 '단칸') 결과, 대표지표인 제조대기업 업황 판단지수(DI; 좋음-나쁨)가 전분기대비 2%p 하락**한 11%p로 4분기만에 하락 전환(23.9월 9%p → 12월 13%p → 24.3월 11%p)

* 대상기업: 9,118사, 회수율: 99.0%, 조사기간: 2.27~3.29일

** 석유·석탄제품(23.12월 0%p → 24.3월 9%p), 식료품(18%p → 24%p), 조선·중기(9%p → 18%p) 등 전체 16개 업종 중 8개 업종은 상승하였으며, 자동차(28%p → 13%p), 비철금속(15%p → 6%p), 전기기계(2%p → 0%p) 등 7개 업종은 하락

○ 비제조대기업 업황 판단지수는 2%p 상승*한 34%p로 1991.8월(41%p) 이후 가장 높은 수준(8분기 연속 상승, 27%p → 32%p → 34%p)

* 건설(23.12월 22%p → 24.3월 26%p), 부동산(46%p → 52%p), 정보서비스(49%p → 54%p) 등 전체 12개 업종 중 6개 업종에서 상승

○ 소규모·소산업 업황 판단지수*는 1%p 하락(10%p → 13%p → 12%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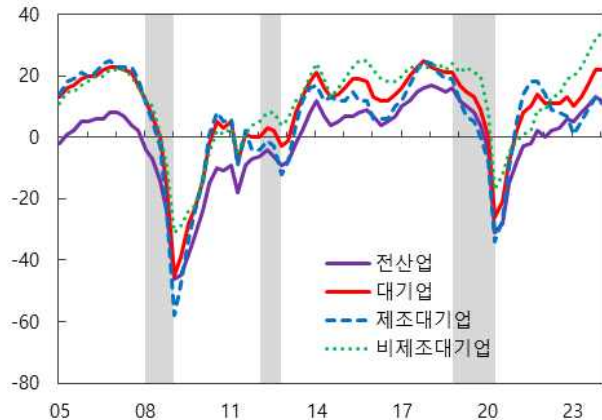
* 제조업(23.12월 5%p → 24.3월 4%p), 비제조업(18%p → 18%p)

□ 3개월후 제조대기업 업황 전망지수는 10%p로 현재(11%p)보다 하락

○ 소규모·소산업 전망지수는 9%p로 현재(12%p)보다 하락

업황 판단지수¹⁾(%p)

	23.12월	24.3월	
	실적	실적	전망 ²⁾
< 대기업 >	22	22	19
제조업	13	11	10
비제조업	32	34	27
< 중견기업 >	14	14	11
제조업	6	6	5
비제조업	19	20	15
< 중소기업 >	9	7	5
제조업	2	-1	0
비제조업	14	13	8
< 전체 >	13	12	9
제조업	5	4	4
비제조업	18	18	13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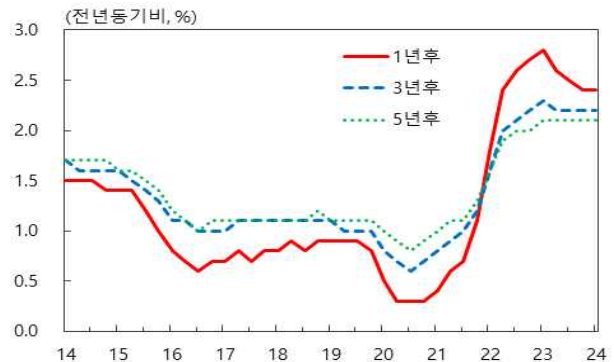
주: 1) 좋음 응답비율-나쁨 응답비율 2) 3개월 후 전망치 3) 음영은 경기후퇴기

- 고용인원 판단지수(과잉-부족, 전산업 23.12월 -35%p → 24.3월 -36%p)는 하락하고 3개월후 전망치(-39%p)도 현재보다 하락
 - 생산·영업설비 판단지수(과잉-부족, 전산업 -2%p → -1%p)는 소폭 상승하고 3개월후 전망치(-4%p)는 현재보다 하락
- 2024년도 설비투자계획액 증가율(토지 제외, 소프트웨어·연구개발 포함 전년비)은 4.5%로 2023년도(10.2%) 대비 감소
 - 대기업(9.5% → 4.1%), 중견기업(10.2% → 8.5%), 중소기업(13.7% → 1.6%) 모두 감소
- 기업의 기대인플레이션(전년동기비 소비자물가상승률)은 1년후(23.12월 2.4% → 24.3월 2.4%), 3년후(2.2% → 2.2%) 및 5년후(2.1% → 2.1%) 모두 전분기 수준 유지
 - 판매가격 전망(현재수준대비 상승률)은 1년후(2.6% → 2.7%) 및 3년후(3.7% → 4.0%), 5년후(4.4% → 4.7%) 모두 전분기 대비 상승

고용인원 및 생산설비 판단지수¹⁾(%p)



기업의 기대인플레이션



주: 1) 과잉 응답비율-부족 응답비율 2) 음영은 경기후퇴기

2. 시장 반응

- 주요 언론 및 시장참가자들은 자동차 조업중단 등의 여파로 자동차업종의 업황이 크게 악화되고 연관업종(철강, 비철금속 등)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(일본경제신문, Reuters 등)
 - 다만 제조업 및 비제조업 실적치(각각 11%p 및 34%p) 모두 시장예상치*를 상회하며, 비제조업의 경우 양호한 인바운드 수요 지속의 영향으로 '91.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관련 업종의 호조세는 지속
 - * 각각 10%p 및 32%p, 대기업 기준, Bloomberg
 - 기업의 판매가격 전망이 상향조정되는 등 향후에도 가격전가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에도 주목